

북미 실무회담서 '트럼프 모델' 조율

내일까지 판문점 의제 협상 美, 핵탄두 조기 반출 요구한 듯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팽팽한 기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협상멤버들의 면면부터가 쟁쟁하다. 27일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회담에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를 비롯해 엘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과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한반도 통 3인방'이 투입됐다. 북한에서도 최고의 대미통으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서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평가가 나온다.

대북·대미 대표들이 포진한 만큼 이번 의제조율 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방법과 체제안전 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우선 핵폐기 첫 수순으로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28일 미국 관리들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핵물질 가운데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부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백악

관 안보사령관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거론해온 방식이기도 하다. 북한 측이 핵무기·미사일 전체의 국외 반출 대신 미 본토 공격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을 먼저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과 선을 그으며 대안으로 제시한 '트럼프 모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어디까지나 의제조율을 위한 사전 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여기에서 당장 비핵화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부 관리들은 실무회담에서 북미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로드맵 등 향후 추가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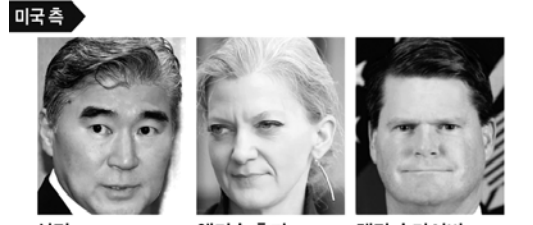
외교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실무회담의 결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개최 여부뿐 아니라 그 결실의 운까지 결정지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판문점 통일각서 북미 실무회담 진행



일시: ~28일, 29일 (실무회담 시작 시점은 알려지지 않음)
논의 내용: 비핵화를 비롯한 북미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
실무회담 양측 대표단



미국 측
성김 - 전 주한 미국 대사 -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 현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엘리슨 후커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북한 측
최선희 - 북한 외무성 부상
최강일 - 외무성 북미협력국 부국장

/연합뉴스

입장 바꾼 아베 "북미회담 성사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조율이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미정상회담 실현에는 우여곡절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되는 기회가 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종전에는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반대한다"는 등 북한과의 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지만 남북, 북중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담을 통한 납치문제 등 현안해결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북미회담이 되도록 밀밀이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미일, 한미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34> 고선지의 참모 봉상청

봉상청(封常清, ?~756)은 산서성 임의현 사람이다. 고구려 유민 출신인 고선지 장군의 참모가 되어 서역정벌 등에 큰 공을 세웠다. 안녹산의 난때 음해를 받아 처형되었다.

말년이 외조부가 죄를 지어 유배되었는데 손자에게 글을 읽도록 가르쳤다. 외조부 사후 30세 되도록 빈한하게 살았다. 자치통감에는 그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고 가늘게 몸이 아위고 눈이 어그러졌으며 한쪽 다리가 짧았다고 기록되었다. 도지병마사 고선지 장군 관사 앞에서 수십일간 하인으로 받아들일 것을 청해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달해부가 반란을 일으켜 고선지가 처벌하였는데 그가 임의로 승전보고서인 첩서(捷書)를 작성하였는데 마음이 속 들었다. 고선지가 절도사가 되

단수실이 건의하기를 "오래게 군사들이 여러차례 패배하며 우리 군을 유혹하니 주위의 산과 숲을 정찰해야 합니다." 그가 이를 따라 북병들을 사로잡고 적의 항복을 받아냈다. 754년 조정에 들어와 어사대부가 되었다. 그의 아들에게 5품 관직이 제수되고 부모에게 봉작이 주어졌다. 현종은 그에게 안녹산을 격파할 방책을 하문했다. 답하기를 "신이 받아들일 것을 청해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달해부가 반란을 일으켜 고선지가 처벌하였는데 그가 임의로 승전보고서인 첩서(捷書)를 작성하였는데 마음이 속 들었다. 고선지가 절도사가 되

755년 여양에서 안녹산이 거병했다. 파죽지세로 서진했다. 장안이 위태로워졌다. 현종은 그에게 안녹산을 격파할 방책을 하문했다. 답하기를 "신이 받아들일 것을 청해 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달해부가 반란을 일으켜 고선지가 처벌하였는데 그가 임의로 승전보고서인 첩서(捷書)를 작성하였는데 마음이 속 들었다. 고선지가 절도사가 되

안녹산의 난때 음해 받아 처형

자 그를 부사령관인 판관(判官)으로 임명했다. 고선지가 정벌을 하러 나가면 그를 유후(留後)로 삼아 직무를 대행케 하였다. 고선지 유모의 아들인 정덕전이 낭장으로 있었는데 그를 업신여겼다. 하루는 정덕전이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 나가면서 그를 부딪치고 지났다. 그는 정덕전의 무릎을 얹히 꾸짖었다. "나 봉상청이 본래 가난하고 지체가 낮은 출신이지만, 오늘 장군의 명으로 유후가 되었는데 낭장이 어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업신여기고 부딪치는가." 곤장 60대를 쳤다. 고선지의 처와 유모가 문밖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지원하려고 하였지만 허사였다. 이후 군대안에서는 그를 두려워하며 숨소리조차 삼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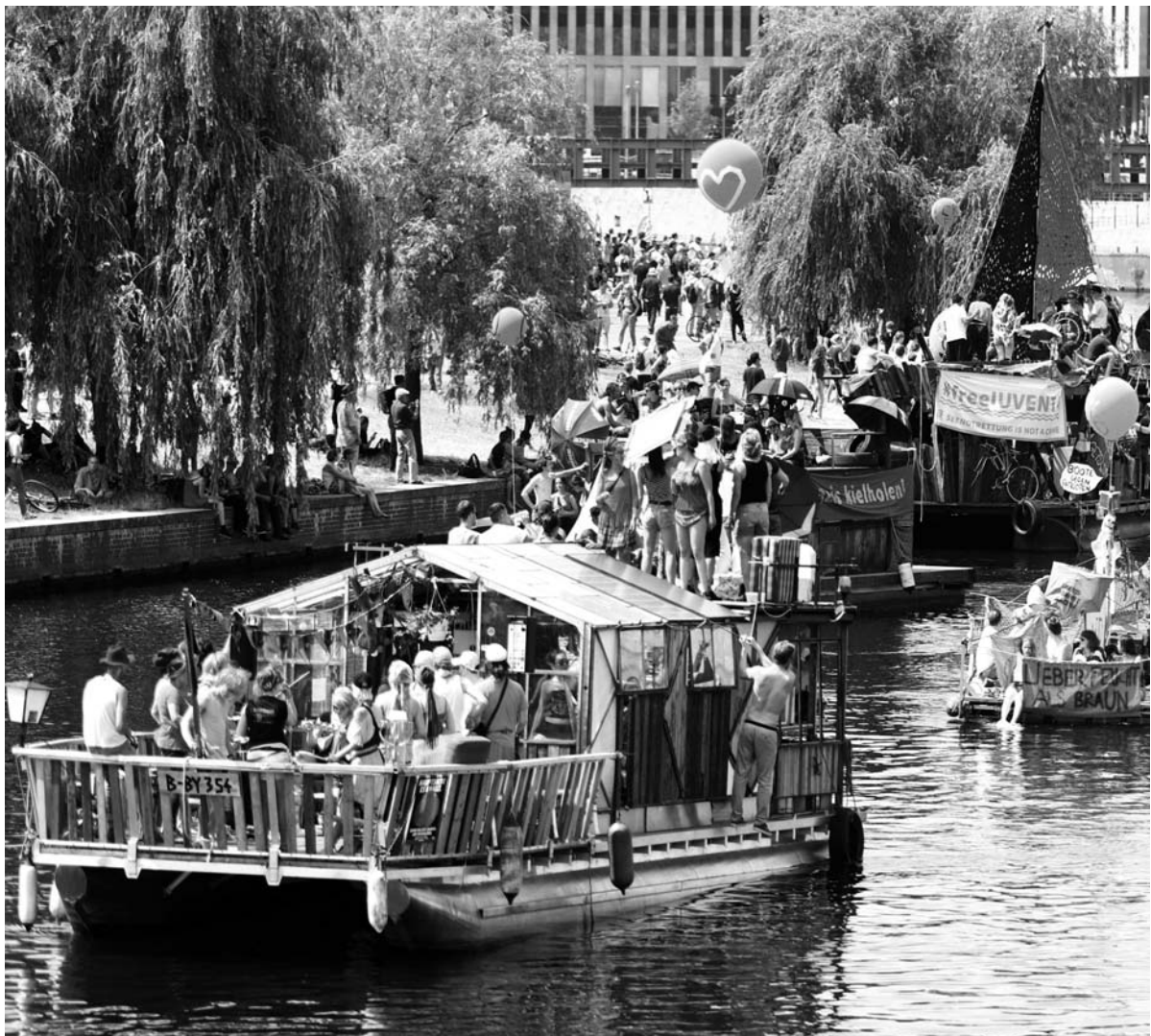
그를 범양, 평로절도사로 삼으니 바로 낙양에 이르러 열흘동안 6만명의 병사를 모았다. 하남성의 하양교를 끊고 배수진을 쳤다.

안녹산 군이 낙양에 접근하자 하남성 무위, 규원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낙양성을 지키며 도정역, 선인문에서 싸웠으나 패해 서쪽으로 도망쳤다. 봉상청은 모두 평민이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 용감한 적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는 고선지에게 장안 외곽의 동관에서 방어진을 칠 것을 건의했다. "동관에는 병사가 없으니 만약 데지 같은 적들이 동관으로 진입하면 장안이 위태롭습니다. 하남성 섬군을 지킬 수 없으니 동관을 지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둘은 병사를 이끌고 동관으로 가 방어진에 나섰다.

군대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환관 변영성과 고선지는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변영성이 둘이 섬군을 지키지 않고 동관으로 이동한 것을 허위 보고했다. 격노한 현종이 처벌을 명하였다. 변영성은 그에게 칙명을 선포하였다. 그가 유언으로 표문을 썼는데 "신이 죽은 뒤에도 바라컨대 폐하께서는 이 역적들을 가엽게 여기지 말고 신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현종은 장안을 지키지 못하고 사천으로 도망갔고 이후 7년간 천하가 혼란스러웠다.

천보 6년(747) 고선지를 따라 소박을 격파했다. 동년 12월 고선지가 부몽영건의 뒤를 이어 안서절도사가 되자 경왕부 녹사참군으로 임명하고 절도사 판관으로 삼았다. 식량 생산, 물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천보 10년(751) 고선지가 하서절도사가 되자 판관으로 임명하였다. 왕정권이 고선지 후임으로 안서절도사가 되자 그를 사진 지막영전부사·행군사마로 삼았다. 752년 안서사진절도사가 되었다. 753년 안서절도사가 되어 키르키스탄의 대탈락을 공격해 승리했다. 참모인

그를 범양, 평로절도사로 삼으니 바로 낙양에 이르러 열흘동안 6만명의 병사를 모았다. 하남성의 하양교를 끊고 배수진을 쳤다.



독일서 반난민 집회 비난 선상시위 27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선상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날 베를린에서는 AfD 주도의 반(反)난민·반메르켈 집회와 AfD에 반대하는 맞집회가 나란히 열렸다. 경찰은 AfD 집회에 5000명, 맞집회에는 2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원룸매매(신축)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전망최고!!

▶ 매가 9억5천만

- 1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2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62-382-5500 010-6670-9800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 5백 월 45만

시세 1억
매가 7천5백만

- 1 상무지구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40만) ▶ 시세 8천만→매매가 7천만
- 2 월산동 3층상가건물, 무등시장 1분 (코너) 보1억4천 월900만 (용 7억) ▶ 매가 22억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 4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진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5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1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평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평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형)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감평가 37억 → 최저가11억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지아파트 위치 ▶ 감평가 6억 → 최저가 3억3천

근린상가/빌라/속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 1) 남구 쌍촌동 (3층)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800만
- 2) 남구 백운동 (빌라)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 3) 북구 신안동 (6층 속박시설)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
- 4) 북구 용문동 (12층중 7층상가) 감평가 9억2천 → 최저가 2억9천9백
- 5) 남구 주월동 (미빌) 토 108평 건 88평 감평가 4억2천 → 최저가 10억
- 6) 남구 쌍촌동 (3층) 감평가 2억9천9백 → 최저가 2억
- 7) 남구 진월동 (4층) 감평가 1억9천9백 → 최저가 1억9천9백
- 8) 북구 신안동 (3층) 감평가 1억9천9백 → 최저가 1억9천9백
- 9)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시세 1억9천 → 최저가 1억5천9백
- 1) 남구 주월동(주택) 토 40평 건 40평 감평가 1억 → 최저가 7천
- 2) 광산구 도산동(주택) 토 66평 건 26평 감평가 7천3백 → 최저가 7천9백
- 3) 북구 신안동(속박시설) 토 117평 건 338평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4억9천
- 4) 서구 용문동(속박시설) 토 138평 건 427평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1억9천9백
- 5) 광산구 월산동(공영) 토 126평 건 88평 감평가 34억 → 최저가 34억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교육 (5월 개강)

- 1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 2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 3 무료반운영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